

흔히 대학의 사명은 연구, 교수 그리고 봉사등 세가지로 일컬어 지고 있는데 이번에 본 대학교 교수님들의 연구결과를 한권의 책으로 묶어 출판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의 연구결과는 교육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대학 내외의 독자들이 연구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사회 봉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논문집의 발간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1969년에 교수논문집 제1권을 출판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2권의 논문집을 발간하였는데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고신대학교의 이념과 역사, 그리고 우리 대학교의 정신사를 반영해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발간된 교수논문집은 고신대학교 관계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학계에 폭넓은 영향을 기치고 기독교 학문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 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이 제22집도 널리 읽히지며 기독교 학문(Christian scholarship) 운동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금년은 고신대학교가 설립된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 입니다.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의 설립정신 혹은 건학이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간의 대학의 역사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학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이지만 처음에는 분명한 종교적 확신과 이념에서 설립되었던 대학들도 외형적 규모의 확장, 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대학 본래의 이념을 상실하고 차츰 세속화되어 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바드 대학의 경우 대학학칙(The Laws, Liberties and Orders of Harvard College, 1646)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탐구의 중요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여길 지니라"고 하였고, 1745년도 예일대학(The Laws of Yale)에서는 "모든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 종교적이며 경건한 그리고 흠없는 삶을 영위할 것이며 빛과 진리의 원천이 되는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할 것이며 공사간에 모든 종교적인 의무에 부단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그 설립정신은 그후 대학구성원의 종교적 신념이 쇠퇴해 가면서 학칙에서 규정하였던 기독교적 학문정신은 점차적으로 상실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경험은 설립 50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서구 대학의 세속화 원인으로 흔히 세가지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는데 첫째는 설립주체인 교회와 대학간의 소의 혹은 격리현상이었습니다. 대학이 교회적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는 필연적으로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였고 결국 대학의 세속화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학이 기독교적 이념을 무시하고 학문적 수월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학문의 사유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모험적인 사고'는 세속화를 촉진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로는 대학의 인적 구성면에서 기독교적 인사보다 비 기독교적 인사가 대학의 지배계층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구성원이 신자보다 비 신자수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기독교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설립 50주년을 맞는 우리대학의 사명은 지대한 것입니다. 설립 80주년 혹은 백주년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기독교적 학문운동을 전개해 가는 기독교 대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들의 기독교적 학문연구, 곧 연구활동입니다. 대학교육 혹은 학문연구에 있어서 이념의 경시는 사실은 개방(openness)이 아니라 폐쇄(closing)입니다. 학문연구에 있어서 이념의 상실은 도덕교육이나 가치교육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결국 '문명화된 야만인'(civilized barbarians), 혹은 "교육받은 문맹자"(educated illiterate)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절대적 가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결국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가치중립주의가 되고 맙니다. 즉 가치나 도덕적 상대주의(relativism)는 대학교육에서의 도덕적 무지(illiteracy)를 고양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미국 대학의 현실을 알란 블룸(Allan Bloom)은 "미국지성의 패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연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립 50주년을 맞는 고신대학교의 사명은 중차대 합니다. 모쪼록 우리 대학이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 세계관 위에서 학문을 재조명, 재구성, 재창조 하고자 하는 기독교학문운동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적 이념에 기초한 교수들의 연구결과를 출간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1995년 12월 일

고신대학교 총장 오 병 세

믿음이 인격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Influence of Faith on the Function of human Personality

김성린*

목 차
서 론
I. 믿음과 마음
II. 믿음과 지성
III. 믿음과 감정
IV. 믿음과 의지
결 론

서 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믿음의 근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계약과 이 계약에 수반된 약속의 실현의 확신이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민족적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개인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공동체를 통하여 함양되고 공고하게 되고 표현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며 한번 맺은 약속을 이행하며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개인적인 신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그의 믿음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17:19)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의심하지 않았다.

현대에 사는 크리스찬에 있어서도 믿음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 명예교수(신학과), 철학전공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며(히11:6)”.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였으며(히11:3)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구원을 미리 준비하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창3:15)으로 처녀의 몸에서 난 “임마누엘”(사7:4) 이심을 믿고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說破)하였으며(행2:36:10:40~42)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다.(행2:38)

이렇게 볼 때 믿는다는 것은 사도가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자기 인격에 대한 예수의 선언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고백(마16:16)이다.

이 고백은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승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고백적 믿음에 의하여 신자들은 전폭적으로 자기가 믿고 고백한 진리에 복종하며 새로운 삶의 태도를 견지(堅持)하므로 주와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전 인격이 본질적으로 변혁(變革)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사람의 마음에 좌정하여 마음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이 변화가 다른 인격기능에 까지 파급되어가서 마침내 전 인격기능이 믿음으로 변해야 한다.

사람의 인격기능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성질이 남아 있으면 여기서 썩뿌리가 나서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완숙된 신앙적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1장에서 믿음이 인격의 중심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작용하는데서 시작되는 회심(回心)에 대하여 2장에서는 믿음의 토대가 되는 진리와 관계되는 지성에 대하여, 3장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 대한 후회와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찬동이 동반되는 감성에 대하여, 4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종합하여 최종단계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지에 대하여 각각 고찰하므로 크리스찬의 인격이 결손(缺損)된 부분이 없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신앙적 인격을 형성하여 감에 있어서 일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I. 믿음과 마음

마음(heart)은 사람의 인격기능의 핵심이자 중심적 기관으로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제한다.

믿음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작용(作用)하면 지성(고전2:14,15, 고후4:6, 엡1:8, 골3:10)과 의지(빌2:13, 살전3:5, 히13:21)와 감정(시42:1,2, 마5:4, 벧전1:8)의 제 반기능들이 변하여 새롭게 됨으로서 사람의 인격이 근본적으로 변혁된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엡2:10)와 성령의 내적 감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요3:5,6,7)

성경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요1:13) “거듭나는 것”

(벧전1:3) “사는 것”(엡2:5, 골2:13)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고후5:17) 즉 중생을 의미한다.

중생함을 받은 자의 마음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엡4:22,23)”

이러한 현상을 회심(回心-conuersion)이라고 한다.

성경에는 회심을 나타내는 말로서 몇가지 말들이 사용되고 있다.

① 나캄(Nacham) “후회한다”는 뜻이며 니팔 형에서는 “회개”를 의미한다.(렘8:6)

② 슈브(Shubh) “돌아선다”는 뜻인데 회심을 나타낼때 가장 자주 사용된다. 이 말은 가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종교적 윤리적 의미로 사용이 된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때 “슈브”라는 말이 사용된다.

③ 메타노이아(metanoia) 이 말은 “메타”(Metj-after)와 “누수”(Vou-mind)의 합성어로서 “후에 아는 것”(after-knowledge)을 의미한다.

왈덴(walden)은 「회개의 의미」(The Great Meaming of Metanoia)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말은 완전히 전개되었을 경우 지성적, 도덕적 중생이 되는 마음의 일반적 변화의 개념을 나타낸다”고 했다.⁽¹⁾

트렌치(Trench)는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후에 아는 것”과 이 삶의 결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To change mind the result of this offer-knowledge)과 이 마음의 변화 이전에 추구했던 삶의 행정(行程)을 뒤우치는 것과 미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²⁾

④ 메타멜로미아

이 말은 “뒤우친다”라는 동사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마리:29,32, 27:3, 고후7:10, 히7:21)

앞에서 말한 “메타노에모”가 의지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다분히 감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³⁾

이렇게 볼 때 회심이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뒤우치고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중생은 단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역이지만 회심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서 점차적으로 완숙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한 후에도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경우도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매를 맞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본다.

히스기아와 요시아 시대에 민족적 회심이 있었고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러한 민족이나 도시민의 일반적인 회심은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갱신(更新)하고 종교적으로 회개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사악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악을 행하면 즉시 옛날의 악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1) Systematio Theology, Berkhof, 권수명, 이상원 역, p.730

(2) Ibid, p.480~481

(3) 「메타노에모」는 의지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지만 “메타멜로미아”는 감정적 요소가 우세하기 때문에 명령여지가 희박하다.

이 말이 로마교회에서는 “고해한다”(paentenyion agiate)는 말로 전의 되었다.

성경은 또 일시적인 회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게 되는데(마13:20,21) 그 이유는 회심이 마음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로 결말을 맺는 것이다.⁽⁴⁾ (고후7:10)

이 회심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사람의 의식(意識)과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도 사람이 지금까지의 생의 여정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이다.

진정한 회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용하시므로 가능하지만,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자원(自願)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 하심에 있어서 사람의 인격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령을 보내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전향토록 감화시키시지만, 동시에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권유하신다.⁽⁵⁾

이렇게 볼 때 회심에는 타동과 자동의 두 측면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잠1:23; 사31:6,59:20;箴14:6,18:32,33:9,11)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능동적으로 작용하시지만 사람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므로 하나님께 전향하게 된다.⁽⁶⁾

그러므로 타동적 회심(Conversio-transitiva)은 자동적 회심(Conversio intransitiva)의 원인이 된다. 성령의 내적감화 없이는 누구도 진정한 회심에 이르지 못하지만 한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의 심령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새생활을 해야한다.

회심은 중생을 통하여 새롭게 된 자의 심령에서 생기는 최초의 주관적 변화며 이 변화는 성화처럼 점진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생애에 단 한번 일어나는 변화다. 때로 회심을 경험하고도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중생한자의 심령 속에서 일어난 최초의 회심이 소멸(消滅)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다.

회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사도바울처럼 돌연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행9:1~19, 22:3~16, 26:9~20) 디모데처럼 점진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딤후1:5,6,3:14,15)⁽⁷⁾

진정한 회심에는 심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와 그리스도에게도 전환하는 믿음의 두 부분이 있다. 회개는 뒤를 돌아보는데서 후자는 앞을 바라보는데서 생긴다. 회개는 성화와 관련되고 신앙은 칭의(稱義)와 직결된다. 믿음에 세 요소가 있듯이 회개에도 지적, 의지적, 정서적, 세 요소가 있다. 그것은 양자가 동일하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① 지성적 요소

회개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죄가 있음을 깨닫는 데서 비롯되는 죄의식에서 출발한다.

(4) 박형용 조직신학5권, p.200

(5) 진정한 회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둥병의 고침을 받은 나아만(왕하5:15) 브닷세(대하33:12,13) 삭개오(눅19:8,9) 사마리아여자(요4:29,39) 구스내시(행8:30), 고빌료(행10:44) 바울(행9:5이하)

(6) iaid. p.201

(7) 돌연적 회심은 성장과정에서 참된 종교 교육을 받지 못한자가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의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점진적 회심은 성장과정에서 종교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자가 경험한다. 유아세례를 받은자 중에는 중생과 회심의 시기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ibid. p.205

나단선지가 다윗에게 범죄한 사실을 지적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삼하12:13)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51:3)라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했다.

회개는 구체적인 죄의식에서 출발한다. 바울이 로마서 3:20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한 것은 ‘깨달음’ 만으로 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지만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않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죄를 범하므로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곤경에 처해진다고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는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약하다.” (출9:27)라고 모세에게 고백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으며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마27:3) “내가 무죄할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27:4)고 고백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목매어 자살했다.” (마27:6)

이렇게 볼 때 진정한 회개는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을 중심에서 깨달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 하겠다.

② 감정적 요소

진정한 회개에는 감정적 요소가 동반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닭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26:75)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으며 다윗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애통했다.(시51:2,10,14)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고후7:10) 인간적인 감정에서 근심하고 후회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교훈하고 있다.

회개가 단순히 회환과 절망과 비애와 같은 감정에만 머물고 있으면 이는 세상근심이 되며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진정한 회심에서 일어나오는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감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③ 의지적 요소

죄를 깨닫고 미워하는 자는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의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청중들이 마음에 찢려 “우리가 어찌할고” (행2:37) 했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행2:38)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뜻을 정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진정한 회심의 최종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의지적 결단이다. 자기가 범한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고 해도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돌아서기로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갔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51:4)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51:10)라고 기도한 것은 다윗의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와 의지적인 결단과 삶의 근본태도를 고백하는 시적 표현일 것이다.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행위(눅15:20)야 말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케 한 최종적인 행동이었다.

의지적 요소가 다른 두 요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심을 신인합작(神人合作)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회심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일이며 사람은 거기에 순응할 따름이다. 이 순응의 방법이 인격적이지 자원(自願)적이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금광석이 금으로 제련되는 과정에서 금광석이 의식적으로 거기에 호응(呼應)할 수 없지만 사람은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의식적으로 적극 순응한다.(벧전1:6,7)

중생에 있어서는 새로운 원리에 따르는 새생활을 하면서도 당사자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회심에 있어서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생의 원리에 따라서 살겠다는 결심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심리학자들은 회심을 종교적 자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인간의 자연적 심리현상(現象)으로 간주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심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회심은 인간의 근본적인 생의 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을 억지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는다.

성경은 회심에 있어서 인간편에서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시55:7, 렘18:11, 겔18:23,32, 33:11, 행2:38, 17:30)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⁸⁾

II. 믿음과 지성

믿음이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되는 마음에 주어지고 작용하는데서 회심이 야기되지만 그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작용하기 시작한 믿음은 사람의 인격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마지막에는 전 인격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기능이 지성인 것이다.

기독교는 철두철미 진리에 입각한 종교다. 진리아닌 것은 기독교가 아니며 진리아닌 것은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중생함을 받은 사람의 영혼은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해 마지 않는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적 인식의 한계를 초월한 성질의 것이 근간(根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부분이 없이 다 인식하고 믿을수는 없는 것이다. 교부 터툴리안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설파한 것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것이 아니고 초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을 전해(全解)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인식이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까지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데서 성립이 된다.

기독교의 진리를 전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 내용이 너무 난잡해서 이해할 수 없다거나 진리로 받아드리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성경에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8) 기독교교리개설, 김성린, P.230~231

있는 말씀은 말씀의 진리성을 뒷받침하는 사실(Facts)들이 병행(併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것 없이 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엄청나서 인간의 인식기능의 한계선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앙의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Belkhof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받아 드리는 진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⁹⁾고 기술하고 있다.

이 지식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된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성과 그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實在性)과 그가 증거한 복음의 진실성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결여된 믿음은 구원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로마교회는 믿음을 사람의 마음이 판명(判明)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하는 표명적 신앙(表明的 信仰=Txplicit Faith)과 알지 못하는 제안들의 진실성을 믿는 묵종적 신앙(墨從的 信仰 implicit faith)으로 구별하고 전자에 대한 명백한 믿음을 가지면 후자의 믿음도 가지는 것이라고⁽¹⁰⁾ 가르친다.

그리하여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초이성적 사실⁽¹¹⁾에 대한 지식은 신앙에 필요하지 않으며 가르칠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가르치라고 교훈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10:14,17)고 교훈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다만 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하나님의 천지창조(창1:1)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사7:4)과 역사의 종말(계22:20)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¹²⁾이 없으면 기독교의 진리는 한갓 허구(虛構=Fiction)로 간주되고 만다.

합리론의 계열에 속한 종교가나 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기도한다.⁽¹³⁾

(9) Belkhof, Systemata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역, P.754

(10) 박형용, 조직신학 제5권, p.250

(11) 예를들면 신의 존재는 자연은 시에 속한다고 이성적으로 증명 가능하지만, 삼위일체 동성녀탄생, 같은 진리는 초자연적 은사에 속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12) 중생함을 받은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음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내적 조화와 일치에서 성립되는 참신앙으로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나타난다.

(13) Socrates, Platon, Aristoteles Augustine, Anselmus, Aquinas, Desearthes, Kant, Clark 등은 우주와 인간을 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성적 사유를 통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이들은 인간의 정신에는 신관념, 자아관념, 동일율과 같은 관념이 내재한다고 생각한다. Aristoteles는 인과의 계열을 소급하여 최초의 원인이라는 개념에 도달하고 이것을 제일원인, 부동의 원동자, 필연적 존재 즉 신이라 했으며, Clark는 진리의 一義性을 주장하고 인간의 정신에 있는 진리로 궁극적으로는 신의 진리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저들은 인간정신에 내재하는 신관념(God idea)을 추론해서 신의 존재를 연역(演繹)하는가 하면 원인의 원인을 소급하여 최초의 원인으로서의 신의 존재를 추론하기도 하고 도덕의식의 존재사실에 대한 현상적 정신분석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요청(Kant) 했지만 그러한 산지식은 성경이 증거하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이성적 사유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추상적인 언급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출3:14이하)라고 직접 말씀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4:24)라고 말씀하셨다.

구약성경에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수시로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보였다.⁽¹⁴⁾ 하나님의 인격적 실재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것은 성자하나님의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창3:15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사탄의 세력을 분쇄할 것을 의미하는데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리라”(사7:14)고 예언했으며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음으로(마1:1,2,18,23, 마2:6) 원시적 복음이 성취되었다.

요1:1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였고 요1:14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였고 요1:18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산 지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말씀과 약속들을 진리로 인식하고 승인하는데서 부터 출발한다.

증명은 그것이 정당하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증거는 그것이 비록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주관적으로 그 증거를 채택을 해야한다.

증거의 내용 못지않게 증거를 하는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증인을 불신하면 그 증거도 믿지 못할 것이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심정의 확인된 신뢰와 견고한 찬동이니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이다”⁽¹⁵⁾라고 하였다.

믿음이 단순히 진리의 지성적 승인만으로 끈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 없이는 믿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미신(迷信)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16:17)라고 말씀하심으로 참된

(14) 창16:13에 하갈에게, 창17:1, 18:1에 아브라함에게 출3:2, 33:9에 모세에게, 왕상19:12에 엘리야에게 왕상18:71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와 인격성을 직접 계시하셨다.

(15) 박형용, 조직신학 제5차. p.251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수적이지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교리의 핵심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누가 물으면 언제든지 자신있게 대답해야 한다.

교육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앙의 내용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과 지성 사이에 패리현상이 일어나서 신앙적으로 인격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삼위일체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며 이러한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화된 지성이다.

여기에 대하여 무신론, 일신론, 다신론, 자연신론, 범신론을 지지하는 것을 신앙화되지 않은 지성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원죄와 죄책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며 그것을 진리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화된 지성이다.

여기에 대하여 인간을 동물의 한 족속으로 간주하는 생물학적 인간관⁽¹⁶⁾이나 인간의 인격의 자기 개발을 통하여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정신주의적 인간관은 비신앙적 지성이다.

인식론에 있어서 신앙화된 지성은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계시된 진리의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회의론에 빠지거나 독단론의 오류를 범하지 않지만 비신앙적 지성은 인식의 상대주의와 회의론⁽¹⁷⁾에 빠지든지 아니면 독단론⁽¹⁸⁾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일정한 목적을 부여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성경적 인생관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화된 지성이며 인생의 초월적 목적 같은 것은 없으며, 맹목적인 생의지⁽¹⁹⁾나 권력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존한다고 믿는 것은 비신앙적 지성이다.

과학도가 실증주의⁽²⁰⁾의 영향을 받아서 실험에 의하여 검증된 과학적 명제는 진리고

(16) Gehlen은 인간생물학적(Anthropbiologie) 입장에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하여 볼 때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불리한 입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구를 만들고 사색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현재의 충동을 억제하는 동물의 한 족속이라고 주장한다. Lidwing Landgrebe, Philosophie der Gegenwart, geit 24~25)

(17) 인식이 감성적 경험에서 성립된다고 볼 때 인간의 지식은 상대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사물 자체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게 되며 사람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진다. 결국 보편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지식의 상대순위와 나가서 회의론에 빠지게 되었다.

(18) 인식이 이성적 사유에서 성립된다고 보는 합리론자는 의심할 수 없는 명석 필명할 명제에서 출발하여 조리적으로 연역해 가면 존재와 사유의 최고 실재자인 신관념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여 형이상학의 체계를 확립했다. Socrates에서 Hegel에 이르기까지의 서구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체계는 합리론의 체계라 할 수 있다.

(19) Schopenhower에 의하면 사람은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에 사로잡혀서 무턱대고 살고자 하지만 처음부터 맹목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살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인생은 본질적으로 비관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은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단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자살을 권고했지만 자신은 자살하지 않았다.

(20) Positivism자들은 어떤 명제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감성적 경험을 통해서 실증되어야 한다. 신의 존재니 영혼과 불멸이니 하는 명제는 실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지 못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과학적으로 그 진위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도 말할 수 없고 진리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패변이지 신앙적 지성이 아니다.

신앙화된 지성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을 초월하는 진리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면 그것이 진리로 알고 믿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창1:1)와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사7:14, 마1:1, 2, 18, 23, 눅1:31) 죽음과 부활과 승천(슌14:4, 시16:10, 호6:2, 시16:11, 24:7, 마28:15, 18, 19)과 재림(계22:20)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실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로 인정할 수가 없게 된다.

믿음없는 사람이 신학을 하면 사신신학자가 되고 믿음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믿음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가룟유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다.

III. 믿음과 감성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믿음의 좌소가 마음이며 마음은 인격적 제기능의 핵심이기 때문에 감정에도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믿음이 마음에 자리잡지 않고 지성에만 자리를 잡으면 진리에 대하여 극히 냉담하여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찬동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적 믿음을 소유한 자는 진리에 대하여 찬동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게 된다. 시편기자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蘇醒)케 하소서”(시119:40)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시119:49)고 고백하였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뜨겁다, 열열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불이 붙어서 감정을 통하여 표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의 감정적 표현은 반드시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하여야 한다.

자유주의신학자 슬라이어막허(Schleiermacher)는 마음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를 극대화 시켜서 “믿음은 절대자에 대한 의존의 감정이다”고 정의한다.⁽²¹⁾

그에 의하면 종교의 좌소는 이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양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미지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종교가 신(神)적인 것에 대한 인간영혼의 직접적인 접촉일진대 그의 자리는 감정 안에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는 직접적인 신경험이 된다. 종교는 냉혹한 분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살고 즐기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그대는 교리, 신조와 종교의 온갖 전제들을 배격한다. 매우 훌륭하다. 그런것들을 배격해 버려라. ... 이것들은 우리의 종교적 감정 또는 애정의 내용에 대한 인간적 반응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내게 있어서는 무한, 우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곧 기적이다. 본질적인 감정이 내게 있어서는 곧 영감이다.”⁽²²⁾

(21) 현대신학의 선구자들. 매킨토시 김재준역. p.52

(22) ibid. p.49

그는 여기서 지금까지의 종교관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종교는 과학도 아니고 지식의 체계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다. “종교는 절대존의 감정이다.”⁽²³⁾

그에게 있어서 감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감정이란 것은 객관적 이해의 양식, 정서적 지각의 연쇄, 영적인 것의 각성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 그의 실재적이며 무한한 인과관계로 영혼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²⁴⁾

이러한 종교관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주관적 심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 (The Christian Faith)에서 의존의 감정에 종교의 본집(home)이 있다고 다음처럼 주장한다. 감정 안에서 종교는 살고 또 형성된다. 회개, 기쁨, 하나님께 대한 신뢰 등 감정은 지식이나 행동과는 별개로 종교적 성격을 가지며 보존하는 것이다.

절대존의 감정이란 “경근의 본질과의 자기일치다. 즉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식과 같은 것이다.”⁽²⁵⁾

그렇다면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나뉘어질 수 없는 통일이며 모든 것의 저편, 또는 모든 것의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을 가진 신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 대립적으로 관계를 가지자마자 의존의 감정은 사라지고 말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은 ‘영(Spirit)’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아마도 ‘영성’(Spiritualsty)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²⁶⁾

그의 이러한 신관은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고 주관적 감정 자체 안에서 만물의 근원(창조주가 아님)되는 하나님을 직접 파악(직감)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기독교의 모든 교리도 “크리스천의 종교적 애정을 말씀으로 나타낸 것”⁽²⁷⁾에 지나지 않게 된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앙의 지식을 단순히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경험과 모순된다. 진정한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확신과 찬동과 애정이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감정의 적극적인 찬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진리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에 따라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는 더욱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냉정한 지적판단만으로는 생명력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진실된 크리스찬의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때는 언제나 순화된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찬미와 영혼의 희열과 친절과 동정과 자비는 감정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의 감정적 표현은 가장 원색적이고 그 만큼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존귀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고상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희열(喜悅)이야말로 구원적 믿음의 불가결의 요소가 될 것이다.

(23) ibid. p.52

(24) ibid. p.53

(25) ibid. p.68

(26) ibid. p.69

(27) ibid. p.70 The Christian Faith Ch 15

IV. 믿음과 의지

믿음은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서 절정(絶頂)에 도달한다.

사람의 인격기능의 핵심인 마음(heart)에 자리를 잡은 믿음은 지성을 변화시켜서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고 감성을 변화시켜서 진리에 찬동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게 한다.

믿음이 증생자의 마음에 좌정하여 전 인격기능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일부 기능에만 영향을 미치면 그 믿음은 완숙(完熟)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중에서 탈락하고 말 것이다.

현대주의 신학자 리츨(Albrecht Ritschl)은 지식을 의지에 종속시킴으로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한 준수해야 할 규범(norm)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²⁸⁾ 했다.

이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의미한다.⁽²⁹⁾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감사하기에는 너무 멀고, 경의를 표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중간 거리’⁽³⁰⁾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추진된 행동을 통하여 전 인류가 도덕적으로 통일된” 상태와 비슷한 것이 된다. 그리하여 종교는 도덕적 활동의 한 새로운 면모에 불과한 것으로 되었으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킨⁽³¹⁾ 도덕의 사표인 것이다.

그가 비록 그리스도교는 두 중심을 가진 타원형이어서 도덕적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나, 종교적 중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고 설명할지라도⁽³²⁾ 하나님의 나라란 도덕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데서 성립되는 지상의 나라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나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은 최고의 윤리적 행동인 십자가를 눈 앞에 맞이하며 느낀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는 다른 모든 사람 이상이며 그리스도교의 창설자가 된 것이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가져오게 했기 때문이다. 그 관계는 그 자신의 생활 안에서 충분히 실현되었으며 동시에 그는 믿음의 창조자로서 신자들 안에서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이다.⁽³³⁾ 결국 믿음이란 예수가 세상에서 계실 때 실천한 사랑의 행위를 본받음으로 크리스찬의 현재의 삶에 재생하는 것이 된다.

리츨의 이러한 신앙관은 실존주의의 선구자 키에르케고르(Soren Kierkegaard)의 진리관⁽³⁴⁾의 영향을 받은 칼 바르트(Karl Barth)의 신앙관에서 한층 심화되어 나타난다.

바르트에 의하면 ‘믿음’은 삼인칭 현재 단수인 ‘이다’ (ist-is)

(28) ibid. p.152

(29) ibid. p.151

(30) ibid. p.144

(31) ibid. p.154

(32) ibid. p.155

(33) ibid. p.167

(34) 그에 의하면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체적인 것이다. 실존적 사고를 통하여 주체적 진리에 도달한다. 내가 그 진리를 위하여 살고 그 진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지금 나에게 있어 진리가 되는 것이 주체적 진리다. 이러한 진리는 냉철한 논리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고 진리에 대한 열정적 태도에서 나오는 주관적 결단의 결과다. 이 결단은 역리적 변증법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Werden)이다.

로 표현이 된다.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예수를 사람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볼 것인가?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인식하는 것은 이성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결단하는 것은 믿음이다. 고로 믿음은 주체적 결단이며 이 결단에 따라서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成-werden)이다. 이렇게 하여 믿음은 현재적 결단이 되고 그것은 순간적 결단이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는 믿음이 ‘주체적 결단’이라고 말한 바르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주체적 결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체적 결단은 객관적 진리에 의거할 때만 진리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삭을 번제물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역리(逆理-paradox)처럼 보이는 것은 인간의 우매와 불신앙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실성과 약속의 성취를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회심을 통하여 세상으로 기울어졌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되므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 인격기능이 믿음으로 변하여 상호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회심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믿음은 이러한 회심이 결실되도록 인격의 전 기능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며 자라게 하며 결실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요소 중에 진리가 다른 요소의 토대가 되는 것처럼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적 깨달음과 고백과 확신이 다른 인격적 기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진리이기 때문에 찬동하고 사모해야 하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다.

결 론

이상에서 믿음이 마음을 중심하여 사람의 전 인격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리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마음에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다. 그러나 믿음은 사람의 마음과 그 인격기능을 통하지 않고서는 작용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결실할 수도 없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름뿐인 신자가 되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하므로 결국 삶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진리가 마음에 자리를 잡고 활동하면 비 진리가 마음 속에 침입하여 자라지 못한다. 진리가 마음 속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며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된다.

믿음은 마음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킴으로서 새로운 세계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뒤따라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이 확립되게 한다.

현대의 크리스찬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대부분이다. 저들이 비록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는 비논리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그 결과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이 동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며 따라서 지적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회의론에 빠지거나 독단론의 오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알지만 이 지식은 사람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식인 것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면서도 인식의 대상이 된다.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진리로 믿고 깨닫고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믿음이다.

〈참 고 문 헌〉

박형룡 : 교의신학 제5권, 은성문화사, 1975
 Berhlof :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Erickson, M.g. Thrition Thovlogy, Baker Book House, 1985, Michigan
 Berkhof, It, Christian Faith, Eerdmans, P.C, Miehigan, 1973
 Clark.G. Religion Reason and Reuetalion,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Co. 1961.
 Vantil, A Chritian Theory a Knowledge, Presbytbrian and Reformed Co. 1969. Philadelphia.
 Bavin, H. The Doctrine a god Eerdmans, Michigan, 1951
 Plantinga. A. Faith and Rationality, Uniuersity & Natre name press, 1986
 Ltirschberger, & Cieschichte der Philoophie, Freiburg Herder, 1955
 Kant, & Kritik der neine Vernannt, Wamburg, Felix Memer Verlage, 1971
 Machintosh, H.R. Types of Modern Theology translated by Clai choon kim, the cristian liberation society of korea, 1973

부와재산에 대한 칼빈의 견해 Calvin's views on riches and property

—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에서 —

이 환 봉*

목	차
시작하는 말	
1.	창 조
2.	타 락
3.	구 속
맺는말	

시작하는 말

“빈”(貧)과 “부”(富)는 서로 건널 수 없는 절망적인 간격 속에 언제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빈자는 부자를 질시하고, 부자는 빈자를 홀시한다. 그리하여 개인과 민족, 그리고 나라 사이의 빈부의 대립과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가고 마침내 현대 산업사회의 “부의 위기”가 “인간의 위기”를 가져올 것만 같아 보인다. 그 절망적인 간격을 매우고 이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기적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것인가? 가난의 질투가 감사로, 부의 경멸이 봉사로 바뀌어 질 수는 없을까? 그 기적은 정말 정치적 사회혁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사회학적 기적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안에서 이루어질 영적 기적인가? 우리는 이 오래된 문제를 앞두고 성경에 기초한 칼빈의 입장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교수(신학과), 교의학전공